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77. 추수하는 장면에 대하여

2014. 06. 22.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 살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14:14절부터 살필 시간입니다. 그러나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4:14~16]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세 천사의 기별을 다 살핀 것 같습니다. 그리 쉽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성경의 종교와 신앙의 두 기초에 대하여 회복하라는 기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생명의 하나님, 곧 부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 부가설명이 필요하면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고 다음 구절을 설명하도록 하지요.

답: 고맙습니다. 우리가 10장을 공부할 때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은 성소문제를 연구하고 깨달아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소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때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10장에 말씀한 다시 예언해야 하는 기별의 중심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 시간이 다시없으리라고 선언한 사실을 공부했지요. 그것은 이미 작년에 공부한 것이 되어서 기억이 희미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 내용이 바로 세 천사 기별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곧 셋째 천사 기별의 중심 사상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 더하여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성령께서 확인한 것이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그 행한 일이 따를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그 행한 일이 따르는 것은 곧 보상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잘 믿고 죽는 것으로 끝나면 참 허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의 내용은 영생입니다.(시133:3) 이 구절은 계시록에 기록된 7가지 복의

두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 1:3절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말씀이고, 여기 14:13이 두 번째 기록된 복입니다. 영생은 부활해야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여기서 복은 더욱 부활의 생명과 관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확실성을 전파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과 같은 사상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전문제를 연구하고 깨달아서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은 이미 10장에서 이렇게 먼저 제시되었고, 14장에서 세상에 천사로 표상된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의하여 구체적으로 전파되어서 다시 예언하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144000인이라는 표상적 사람들이라는 것도 가르쳐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4:14 이하의 내용을 살필 것인데 이것도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각각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 목사님, 10장 공부한 때가 한 6,7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아물아물하는데 애청자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잘 상기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의 내용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거절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답: 제가 깨닫기로는 그렇습니다. 14절부터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계14:14~16]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에는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는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차림새를 설명하는데,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석하는 사람들은 이 모습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틀림없지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26:6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계1:7]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과 이 구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았다는 표현을 종합해서 예수님의 재림 광경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3.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지요? 그리고 앞에 인용한 마태복음 구절은 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는데, 14절은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까?

답: 참, 그러네요.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군요. 우리성경의 기록대로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입니다. 원문은 인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이라는 말은 “호모 이오스”인데 같은 종류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서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뿐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단7:13절의 반영입니다.

[단7:13]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다니엘서의 이 장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베풀어놓은 심판석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단 7:9~14을 읽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단7:9~14]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1 그 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12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베푸시고 책들을 펴놓으시고 수종하는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겨서 인자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요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7:9~12의 심판도 인자가 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같은 장면이 계 14:14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6절에는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14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낮을 들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단7:13,14 장면과 흡사합니다.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을 때 심판 자리에 임하시는 모습이지요. 심판은 곡식과 포도를 구별하는 일이라고 14~20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심판이 다니엘 7장의 사건과 같은 것이라면 재림 전에 있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낮으로 곡식이 익었으니 거두라고 합니다. 또 포도도 익었으니 거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심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한 것은 이 장면을 세 천사의 기별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반드시 재림하시는 광경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심판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잘 깨닫고 받아들여라.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거절하는데 따라서 이런 결과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세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이 끝나면 예수께서는 심판의 결과를 집행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재림하실 때에 알곡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해라 하는 기별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이 장면을 순전히 재림하시는 장면만으로 생각하신 것이군요. 당연히 심판과 재림을 연결하는 장면이지요.

답: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분들의 설명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 장면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라고 설명하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제 판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생각하면 생각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5. 아닙니다. 저도 들은 것들을 생각하니 주로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교회에서 해석한 책들도 그렇게 한 것이 주류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 천사의 기별과 심판과 재림을 모두 연관된 상태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림기별을 힘 있게 전해야 하는 이유를 나타낸다고 보신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정말 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답: 그 문제는 작년에 계시록 1:7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 천연계의 하늘에 보이는 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라고 볼 수 없지요. 물론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오실 것입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이 빛나고 흰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광경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17:5에는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를 변형하셨을 때 홀연히 빛나는 구름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되지만 또 상징적으로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이제 예수님의 차림새에 대하여 다른 말씀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금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답: 여기 면류관은 왕관을 뜻하는 디아데마가 아니고 승리의 관을 뜻하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생명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기는 사람들도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했지요. 생명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로 생명이 승리한 것을 드러

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금은 불변하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데(히3:1) 믿음을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 믿음이고 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승리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의 극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금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은 성도들도 금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또한 요엘 3:12~14을 반영하는데, 한 번 찾아봅시다.

[요3:12~14]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보다 13 너희는 낮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14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와 날이 가까움이로다.

계14:14~20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 아주 흡사합니다. 이런 구약의 배경으로 이해할 때에 여기 낮은 심판하는 권세를 나타냅니다. 거두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마태13장의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하는 때를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예수께서 심판으로 알곡이라고 판결 받은 사람을 거두어 하늘 공간에 두실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4절에는 아직 추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추수할 준비가 된 상태를 보여주지요. 15절에서 추수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추수할 것입니다.

6. 예수님께서 친히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추수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답: 예, 1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계14: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낮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라는 말은 앞에 나온 세 천사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오는데요, 다시 10장과 11장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10장 마지막 절에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하였고 11:1,2에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11:19에는 휘장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4:6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니엘 8:14의 성소가 정결하여진다고 하신 말씀의 때가 되었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과 함께 성전에서 천사가 나와서 추수하라고 전한 것은 심판의 결과에 대한 집행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런 표현들은 계시록의 내용이 성전 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1장부터 일곱 촛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에 있는 기구거든요. 구속의 복음은 아주 철저히 성소봉사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소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잘 가르쳐주는 구조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천사는 14절부터 나오는 장면에서 첫째 천사인데, 6~13까지 세 천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14~20까지에도 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7. 성전에서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성소봉사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구원의 구체적인 사실들이 성소 구조와 봉사를 통하여 잘 설명되어 있으며 심판에 대한 것도 지성소 봉사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계11:19에서 지성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15절에서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거두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곡식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때가 된 시점과 구름에 앉아있는 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다니엘 7장의 장면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이것은 심판의 장면이고 성전에서 나와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곡식을 거두라고 한 때는 심판이 끝났을 때일 것입니다. 심판이 끝났다는 것은 은혜 기간이 끝났다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고후 6장에 기록하고 있지요.

[고후6:1,2]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첫째는 사람이 숨 쉬고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해도 치매가 걸렸든지 인사불성이 되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지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둘째는 역사적으로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없어지고 그때는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시기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늘성전에서 심판이 끝났고 곡식이 익었으니 거두라고 하는 명령이 내릴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기간은 아직도 은혜 기간이고 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기간이며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중에 맞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아직은 예수께서 구름 위에 앉아서, 성전에서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기별이 오도록 기다리시는 기간입니다. 은혜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간에 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14장 전체의 장면은 이렇게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8. 그러면 성전에서 전갈하는 천사가 추수하라고 하기 전에는 아직도 곡식이 다 익지 않은 기간이겠습니까.(그렇지요.) 그 기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재림을 맞을 수 있도록 복음을 잘 깨닫고 순응해야 하겠네요. 그때가 되면 거두는 일만 남을 것이니까요.

답: 당연하지요. 때가 되면 지체 없이 낮을 휘두를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14: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낮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때가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살후 1장에 간단

하지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후1:6~10]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강림하실 때 복음에 복종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익은 곡식들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쉼이 있다는 말이지요. 예수께서는 추수하는 일에 대하여 마태13장의 밭의 가라지 비유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찾아보지요.

[마13:37~43]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풀무 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알곡은 거두어져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가라지는 풀무 불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그때가 세상 끝이고 바로 추수 때입니다.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7절 이하에 포도를 거두는 것으로 비유되었습니다.

9.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 때에 대하여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직도 은혜 기간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알곡들이 다 되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굳게 서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